

1930년대 경성의 시청각 환경과 극장문화*

박명진**

<차례>

1. 서론
2. 소음(騷音)의 도시와 시/청각의 착종
3. 시각적 모더니티와 소비 공간
4. 극장 주변, 옥망의 배출구로서의 시장(市場) 공간
5. 결론

<국문초록>

1930년대 경성 공간은 근대적인 소리와 불거리가 본격화된 시기이다. 라디오, 유성기음반에서 흘러나오는 소리, 자동차와 인파들로 인한 도심의 소음 등은 경성 주민들로 하여금 도시 문화의 근대성을 체험하게 만드는 계기입과 동시에 신경을 날카롭게 만드는 원인이었다. 카페, 댄스홀, 극장, 유흥장 등에서 듣는 소리들은 소비자들에게 있어서는 섹슈얼리티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때의 청각체험은 시각이나 후각 등 다른 감각과 분리되어 실현되기보다는 매우 복잡하게 섞인 채로 받아들여졌다. 이 시기 경성 공간에 대한 시각적 인상은 근대성에 대한 매력과 식민성에 대한 거부감으로 분열되는 특징을 지녔다. 남촌, 북촌 사이의 시각적 차별성은 곧 식민지의 어두운 그림자를 상상하게 만들고 동시에 근대적 문물에 대한 동경심을 불러일으켰다. 소위 '대경성(大京城)' 공간에서의 시각 체험은 식민지의 모순과 함께 근대적 소비의 일상성을 유발했다. 극장 내부와 주변의 풍경은 다양한 시청각 체험과 식민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의 소비 활동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때 극장 체험은 연극이나 영화를 통해 근대성을 경험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옥체성에 대한 쾌락을 경험하는 것이기도 했다.

주제어 : 경성, 시청각문화, 근대성, 판타스마고리아, 식민지 자본주의, 극장, 관음증

* 이 논문은 2008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서론

이 글은 식민지 시기 '경성'에서 행해졌던 시청각 문화와 극장 문화에 관련된 도시 풍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경성'과 시청각 및 관람 사이의 함수 관계는 제국주의 본국의 수도인 '동경'의 의사(擬似) 도시로서의 '경성'과 식민지적 소비 대상으로서의 도시적 근대성 사이의 의미론적 계열체를 구성한다.

범박하게 나누어서 말하자면, 식민지 시기 이전의 전통사회를 '청각중심 문화'로 식민지 시기 경성문화를 '시각중심 문화'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식민지 시기 내내 유성기 음반이나 라디오와 같은 청각 문화적 도구들이 광범위하게 유통되었다.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청각 중심 문화'와 '시각 중심 문화'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용어 사용은 유성기 음반이나 라디오 등의 청각 문화가 확산되었다 해도 식민지 시기, 특히 1930년대에는 시각적인 도시 풍경이 크게 변모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1930년대를 중심으로 논의했을 때, 청각 문화와 시각 문화가 함께 확산되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시각 문화가 '문화적 우세종(cultural dominant)'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글은 잠재적 연극 수용자의 지각 변동을 중심으로 하되, 이 변동에 대한 '두터운 묘사(thick description)'를 위해 경성 공간의 문화적 양상을 짚어볼 계획이다. 즉, 근대문화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거론되고 있는 기계소리의 확산과 시각적 쾌락에 대한 문화적 징후들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서는, 유성기 음반이나 라디오에서 들려나오는 소리들, 길거리와 백화점 및 극장 내부를 채우고 있는 다양한 소음들, 그리고 거대한 외관을 과시하는 근대적 건물, 경성의 불거리 문화를 위해 운영되는 도로망과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교통수단, 출판과 영상예술 같은 시각적 매스컴, 불거리를 중심으로 개편되는 박물관과 백화점과 동물원과 명동 아케이드

등의 스펙터클, 자본주의적 노출증(exhibitionism)이라고 할 수 있는衣食住에의 욕망, 새로운 볼거리의 대상으로서의 스타 시스템, 사실주의적 경향의 무대 장치와 의상과 조명 시설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글에서 이러한 징후들을 전부 다룰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은 위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의 완성을 위한 하나의 작은 시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京城性(Seoulness)’과 식민지 시기의 ‘연극 문화’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의미화 실천의 한 국면을 고민해 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소음(騷音)의 도시와 시/청각의 착종

8월 13일, 밤, 책상 앞에 앉으려고 하니 옆방의 라디오 소음이 극에 달하다.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문 밖으로 나가, 소나무 숲 사이로 밝은 달이 떠오르는 것을 보다. 라디오 소리가 그친 것은 10시가 지나서다. 그때까지 숲 속 오솔길을 배회하는데 이슬이 피부에 스며들어 참기 힘들었고, 벌레 소리는 어제 밤보다 요란하다. 집에 돌아왔으나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맥없이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든다.

8월 16일, 초저녁 집안의 라디오 소리에 쫓겨났으나 갈 곳이 없어 이치가화 역 쇼센(省線) 정거장 대합실 의자에 걸터앉아 쓸데없이 시간을 보낸다.¹⁾

위의 글은 소설가 나가이 가후(永井荷風, 1879-1959)가 1937년경에 쓴 일기의 한 대목이다. 비록 옆방에서 들리는 라디오 소음에 대한 작가의 신경질적이고 과민한 반응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이 일기에서 나타나는 가후의 반응은 근대적인 도시 소음에 대한 주체의 거부 반응을 대표하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가후는 옆방의 라디오 소음을 피해 ‘이치가와

역 쇼센 정거장’ 대합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대합실로 가기 위한 노정(路程)에서 가후는 전차나 자동차 소리, 도시 인파가 만들어내는 잡음, 상가(商街)에서 흘러나왔을 유성기 음반 소리나 장사치들이 호객(呼客)하는 소리 등을 들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근대적 도시의 소음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입장에서 취사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요시미 순야(吉見俊哉)에 의하면, 이러한 도시적 소리 메카니즘은 “1930년대 이후 국민국가의 재편 과정과도 밀접”하게 관계하면서, 산업화에 따라 “소리 커뮤니케이션의 국민 공간화, 즉 전화나 라디오 소리를 국토 공간의 균질적인 확장 속에서 일원적으로 유통하는 과정”²⁾에 연루되고 있다. 결국 가후가 경험했던 라디오 소음은 도시의 근대성과 제국의 파시즘 사이에서 불안정하게 요동하는 자극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종로의 밤! 밤의 종로!! 뚝그리지는 자동차와 빠쓰, 쇠와 쇠가 부어지는 듯한 전차, 전차의 비명, 네온사인파 일미네-순의 청황적백으로 장식된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외한 그 우습, 그리고 술취한 이의 주정, 밤거리의 소음! 이러한 서울의 중심 종로의 심포-니에 반취되어 나는 이정목에서 네거리를 향하여 거렸다. 정처업시 거렸다. 백화점 압해까지 가 셋을 때 「예! 오래간만이네!」하는 동무와 함께 사충의 식당까지 층층대를 기어올라 갔다. 그리고 식당의 한 모퉁이에서 히야시코히-룸펜의 행락을 대신하여 한잔을 마시고 있는 때에 나의 귀에 들어는 소리 「방문결혼은 현대적 연애의 한 형식이지요?」마담의 질문에 대한 청년의 대답이었다. 동무와 나는 무의식적으로 청년의 말을 반복해보았다. - 방문결혼!... 삼십이년도의 연애는 방문결혼으로!!³⁾ (밑줄 강조는 인용자.)

2) 위의 책, 364면. 전화나 라디오의 보급은 산업이 일상의 소리 커뮤니케이션을 유망한 시장으로 확보했다는 점과 더불어, 이러한 소리 커뮤니케이션이 히틀러, 루즈벨트, 일본 천황이 소리의 일방적인 전달을 통해 균질화된 국민과 국토 공간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근대성과 식민성이라는 두 양상을 구현하고 있었다.

1) 요시미 순야, 송태욱 옮김, 『소리의 자본주의』, 이매진, 2005, 13-14면.

뿌-웅 뿌-웅 까르르르- 뿌-웅

먼지를 연기가치 니르키면서 진흙무든 자동차와 기생태운 서울자동차가 엇바뀌어지나가는가하면 락 락 락 락 락 락. 큰일이나 난 것처럼 자동차전거가 눈이 뒤집히어 닳는다.

와지직 와지직 낄 낄 와와 『짐마차』

덜거덕 덜거덕 어라 이놈의 소야 『소구루마』

뽕-뽕- 기생태인력거 툽석부리 『인력거』 따르릉

따르릉 아차차 자전거가 어린애를 치고 쓰러졌다.

땡 땡 웅- 『아이고 나좀 내려주세요』

쩔-닝 찔-닝 어서가- 이놈 소야 『나뭇바리』

저벽저벽 저벽 『중학생』

짜박 짜박 짜박 『송곳굽구두』

깨육 깨육 깨육 딱-딱 『모던뽀이 집행이 소리』

여보서요 종로인경전으로 가려면 어대로 감닛가.

날마다 아침부터 밤중까지 이 요란한 속에서 눈을 팽팡 돌리면서도 그 래도 신경쇠약을 부르지 못하는 교통순사야말로 건강하다면 굉장이 건강한 몸이요. 불상하다면 굉장이 불상한 신세지.⁴⁾ (밀줄 강조는 인용자.)

위의 두 인용문을 통해 대도시 경성에서 발생하는 소리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지니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첫 번째 인용문의 밀줄에서 알 수 있듯이 경성의 소리들은 ‘씻소리, 비명(悲鳴), 음외(淫猥)한 웃음’ 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두 번째 인용문의 밀줄 친 부분은 도시의 소음이 ‘신경쇠약’을 불러올 정도로 야단스럽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이야기 해서 1930년대 경 경성의 길거리에서 청취할 수 있는 소리들이란 불쾌한 청각 영상이거나 신경을 쇠약하게 만드는 소음으로 각인된다.⁵⁾ 더 나아

가 서울의 밤을 채우고 있는 소음들은 “享樂하는 人間の 아우성과 이들 享樂人을 爲하여 勞動하는 勞動者의 괴막한 부르지춤”과 “勞動도 할 수 업는 가업슨 몸으로 人間에게 버림 바든 乞人群의 哀愁 어린 눈물겨운 소리의 交響樂”⁶⁾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조선 서울에 안저서 동경행진곡(東京行進曲)을 부르고 유부녀로서 『기미고히사-』를 부르고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몽파리』를 부르는 것이 요사히 『모던-쩔』들이다. 이리하여 그네들이 둘만 모혀도 밤중 삼경 오경에 세상이 떠나가도록 쇠되인 목청으로 그러한 잡소래를 높히 보른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 녀성 푸로파간다-시대가 오면』 지붕 우혜 집을 짓고 그 지붕과 담벼락을 돌코 확장기(擴聲器)를 장치하고서 떠드러 대일 것갓다. 이리하여 『모던-쩔』들의 사설 방송국(私設放送局) 때문에 라디오 방송국이나 축음기 회사에서 다른 방책을 쓰지 안으면 랑패 대랑패!⁷⁾

당시 경성의 일반 가정에서 인기를 끌었던 유성기 음반의 폐해에 대해서 익살스럽게 풍자하고 있는 위의 글은 아녀자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전통적인 여성관을 토대로 하여 근대 청각 문화를 향유하는 여성들의 행태를 비꼬고 있다. 여기에서 근대 문물에 의해 발생하는 이 소음은 이전에 이광수가 “도회의 소리?” 그러나 그것은 ‘문명의 소리’다. 그 소리가 요란할수록 그 나라는 잘 된다. 수레바퀴소리, 증기와 전기 기관소리, 쇠마차소리 … 이러한 모든 소리가 합하여서 비로소 찬란한 문명을 낳는다.”⁸⁾고 했을 때의 희망찬 소리와는 매우 다른 문맥을 형성하

으로 변해가고, 그 대신 활동사진에 등장하는 번사의 목소리가 새로운 문명의 코드로, 감정을 소비하는 기제로 등장한다. 근대의 발명품들이 발산하는 문명과 계몽의 소리 위에 ‘감각을 소비하는 소리’가 덧칠된다.”

이승원, 「‘소리’의 메타포와 근대의 일상성-근대 초기~1930년대 서사양식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제5권 제1호, 한국근대문학회, 2004, 216면.

6) 咸大勳, 「文人이 본 서울, 兩色의 雙流」, 『朝鮮日報』, 1932.1.16.

7) 夕影, 「女性宣傳時代가 오면(6)」, 『朝鮮日報』, 1930.1.19.

3) 黎曉, 「訪問結婚」, 『別乾坤』 제50호, 1932.4.1, 27면.

4) 双生, 「大京城 狂舞曲」, 『別乾坤』, 1929.1, 74-75면.

5) “개화의 상징이었던 연극장의 취균 나팔소리와 떠들썩한 소리들은 점차 ‘소음’

고 있다. 왜냐하면 이광수가 극찬했던 근대의 소리는 도시의 한량들이 자본주의의 향락에 젖어 공간을 이동할 때 들어야만 했던 식민지 도시의 불협화음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돈을 소비해야만 지속할 수 있는 유흥의 노정(路程)에서 맞볼 수 있는 소리이기도 했다.

창경원에서 한바탕 놀고 나서는 던차를 타고 본정통으로 드리웁니다. 시가의 봄빛을 찾자는 것입니다. 유리창마다 봄빛입니다. 양산 비단 목도리 봄모자 봄단장 봄의복 봄실과 본당 일등목에서 오등목까지 완전히 점령을 하고 나서는 명치 제과이나 아까 다마에 드러가 파·피어나 한 잔식 마십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이십전! 아즉도 남은 돈이 일원사십전입니다. 시간이 저무러 입급시가 갓갓거든 희락관이나 대정관으로 드리웁니다. 조선활동 사진관을 가면 이목이 번다하니까 일본활동 사진관으로 갑니다. 이층에는 신발 벗는 것이 불편하다는 리유와 일본만 가면 아래층이 특등이라는 구실을 가지고 하등 표를 삽니다.

‘大人三等 四十錢, 學生三等 二十錢’이라 써 듯쳐 있습니다. 학교는 엇재 졸업했는지 조선 녀자는 트레머리만 하면 학생 행세를 할 수 잇스닛가 도련님은 대인표 자근 아씨는 학생표를 사가지고 드리웁니다. 신사의 테면에 하는 수 업시 방식은 까라야지요 그러면 또 십전이 나아갑니다. 인제는 남은 돈이 겨우 룡십전 구경을 하고 나아가서는 이십오전짜리 양식 밥 한 그릇식 먹고 남은 돈 십전 가지고는 잘자리를 차자갑니다.’⁸⁾

마치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一日> 주인공의 여정처럼 위 글의 주인공은 지칠 줄 모르는 소비 행위를 위해 경성 시내를 바쁘게 돌아다닌다. 그의 동선(動線)은 창경원, 본정통, 제과점, 카페, 요정, 사진관, 양식집, 숙소로 이어지고 있다. 그가 배회하고 있는 경성의 명소(名所)들은 그의 시각적, 청각적, 미각적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감각의 백화점이라 할

만하다.

1930년대 전후 대경성의 문화적 풍경은 청각과 시각이 어지럽게 뒤엉키는 상황으로 묘사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대는 시각적 매체를 통해 근대적 감각이 획기적으로 변모하는 시기이면서 동시에 청각적 매체에 의해 전근대적인 구술문화의 습성이 귀환하는 때이기도 했다. 이 시기의 시각 매체와 청각 매체는 상호 습합되면서 새로운 감각의 주체들을 구성하였다.¹⁰⁾ 물론 청각적 효과에 비해 시각적 효과가 훨씬 자극적이고 매력적이었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청각과 시각 효과가 상호 분리된 채 작동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 식민지 도시 대경성의 매혹은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을 자극하면서 작동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다음 글을 보면 시각, 청각, 후각 등에 대한 자극이 통합적인 형태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밤의 銀座는 네온싸인과 레코드 소리가 대표한다. 大銀座 赤玉會館 銀座會館등 눈이 부실듯한 電裝競爭이다. 유행가가 흘러 나아오고 분내음새가 넘쳐 나아온다. 큰 상점 뒤골목 뒤골목에는 무수한 소카페 소요리점이 있다. 이차회 삼차회쯤은 한글목안에서도 능히 할 만큼 그물을 치고 있다. 『애로시.비쓰』에 잇서서는 그 정도을 미리 헤아리기 어려우나 엇갓든 시골뜨기가 드러섯다가는 창자까지 빼줄 만한 접대는 구타혀 사양치 않는 곳이 處處에 끼워 있다. 『눈감으면 코 비여 먹는 판』이라는 말은 지방사람이 『京城』을 일컫는 말이나 銀座의 노름노리판은 그것케 위험하다는 생각은 갖지 못하겠으나 그대신 한거름 더 나가서 이편에서 고만 정신이 황홀하고 기분이 유쾌해야 쓰지말나도 쓰게만 꾸며 노흔 것이 특히 주목할 점이다. 被動이면서도 自動이다.¹¹⁾

저녁을 먹고 난 S는 양복을 거더 입고 문압 길거리로 나섰다. 길에 늘 비하게 찬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종로로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 S

8) 李光洙, 『李光洙 選集』, 語文閣, 1978, 188면.

9) 李瑞求, 『모뽀모곶의 新春行樂 經濟學』, 『別乾坤』, 1932.5.1, 26면.

10) 소래섭, 『에로 그로 년센스-근대적 자극의 탄생』, 살림, 2005, 35면.

11) 李瑞求, 『鍾路夜話』, 『開闢』, 1934.11, 89-90면.

도 그 틈에 끼었다. C극장 압해는 너줄한 간판 그것과 꼭 가티 너줄한 친구들이 모여서 너줄한 간판을 구경하고 있다. D상점의 축음기에, 붓잡힌 백여명의 친구가 입을 떡 버리고 잇는 틈을 빠져나와 S는 에스팔드의 발을 올려놓았다.¹²⁾ (밑줄 강조는 인용자.)

특사 이상의 흥난스런 환영을 받으며 이층 한편 구석의 뻥스에 안즈니 비로소 그림직한 곳에 온 듯 쉽다. 요란한 전기 레코드 소리에 정신이 아득하다. 불이 푸른데 자욱한 담배연기와 색씨들의 살냄새 술냄새가 숨이 맥힐듯하면서 이상한 흥분을 준다. 취한 손이 어물한 헛바닥을 겨우 놀리며 얼니지도 아니하는 쟈치한 유행가를 부른다.(는것보담 즐거리 즐거리 악을 쓴다.) 양장한 색씨가 수심가 한마디를 뽑는 것은 잘하고 못하는 것은 둘째로 치고 썩 그럴 법하다.¹³⁾

라디오, 유성기 음반, 경성 변화가 등에서 새어나오는 소음들은 백화점, 상가(商街), 카페, 극장, 유원지, 건물 광고판, 네온사인 등의 시각적 환경 속에서 구현되고 있었고, 경성 주민들은 이러한 현상들을 시청각적 체험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라디오나 유성기 음반의 경우 스펙터클한 도시 풍광과는 별개의 고립 공간에서 수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백화점과 박람회 및 동물원의 볼거리들은 소리와 무관하게 진열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적 자극과 청각적 자극이 서로 별개의 상태로 구현되었다고 간주하기보다는 각자의 신호와 자극들이 상대방으로 인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 예가 라디오와 유성기 음반일 것이다.

라디오 또한 흥행물을 유포시키는 막강한 매체였다. 시험방송을 거쳐 1927년 2월 16일 정식으로 시작된 라디오 방송은 ‘낮에는 신문이고 밤에는

12) 『아스팔드를 걷는 친구(넌센스 特設館)』, 『別乾坤』, 1930.8, 161면.

13) 洛江居士, 『京城의 밤』, 『신동아』, 1932.8. (이상길, 『“인텔리 위안소”, 혹은 식민지 공론장의 초상』, 『문화과학』 통권 36호, 문화과학사, 2003, 127면에서 재인용.)

유성기’가 되어 각종 흥행물의 유포에 한 몫을 담당했다. 기악 연주, 단가, 만담, 강연, 소설 낭독, 외국어 강좌(영어), 라디오 연극, 국악(가야금 병창) 등이 경성 방송국 최초의 기본 편성표에 올라 있었다.¹⁴⁾

연극공연의 한계인 일회성을 벗어나서, 좋아하는 연극을 언제든지 접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매력은 새로운 음반 시장으로 각광받을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셈이다. … 유성기음반으로 먼저 발매된 작품이 인기를 끌어서 기성극단의 공연물로 차용되는 경우보다는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⁵⁾

여기에서 라디오 방송은 식민지 주민에게 양가적인 의미로 체험되었다. 우선 식민지 조선에서의 라디오 방송은 “구조를 결정짓고, 프로그램을 제약하고, 정보를 통제하며 의식적으로 일본 문화와 동화주의적 내용을 방송에 주입”¹⁶⁾함으로써 일본의 문화적, 정치적, 인종적 헤게모니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반면에 라디오 방송의 청취 체험은 일제의 동화정책에 포섭되지 않는 반(反)헤게모니적 역할도 담당했다.¹⁷⁾ 시가(市街)의 소음과는 달리 라디오 소리는 선택 청취가 가능했고, 무엇보다도 ‘이야기’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기능을 할 수 있었다. ‘이야기’에 대한 갈증은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소리, 즉 시각이 삭제된 연극의 소리를 통

14) 소래섭, 『에로 그로 넌센스-근대적 자극의 탄생』, 살림, 2005, 29-30면.

15) 김재석, 『1930년대 留聲機音盤의 존극 연구』, 한국극예술학회, 『한국극예술연구』 제2집, 1992, 58-59면.

16) 마이클 로빈슨, 도면희 옮김, 『방송, 문화적 헤게모니, 식민지 근대성, 1924-1945』, 『한국의 식민지 근대성』, 삼인, 2006, 117-118면.

17) 위의 글, 118면. “방송 내부를 들여다보면 다양한 목적을 향해 문화적 건설(cultural construction)이 진전되고 있는 공간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건설은 일본의 통치에 직접 저항하지는 못했지만, 한국의 문화 전통을 유지하고 창조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고 실제로 해 냈다. 일본의 중요한 동화정책 기구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한국의 라디오는 반(反)헤게모니적 공간을 자체 내에 저절로 창출해 냈고, 식민지 내 문화 건설의 또 다른 지점들을 자극했다.”

해 풀 수 있었다.

라디오 프로그램 및 유성기음반은 연극장에 직접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공연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매우 편리한 도구였다. 연극 단체의 입장에서는 “이미 공연으로서 완성된 작품을 라디오를 통해서 다시 방송함으로써 무대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자신들의 공연을 알리고 감상할 수 있도록”¹⁸⁾ 하는 기능을 지니면서 라디오 감상계층의 입장에서는 연극 공연에 대한 친밀감 도모의 역할을 수행했을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¹⁹⁾ 생체험(生體驗)의 대상으로서의 연극 공연이 라디오를 통해 탈시각화되는 상황을 맞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라디오의 무대극 낭송이 연극에 대한 매력을 저하시켰다고 보기도 어려울 듯하다. 유성기음반의 경우에서도 흥행에 성공한 연극 공연을 유성기음반으로 판매하는 절차를 밟고 있었지만, 그 반대로 유성기음반의 흥행 성공으로 연극계가 활력을 얻었다는 점을 전혀 도외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²⁰⁾

3. 시각적 모더니티와 소비 공간

나는 이따금 서울서 가장 繁華하고 文化住宅 만흔 한 거리를 이리저리 거닐다가 그 기풍으로 西北에 솟아있는 仁王山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그

18) 서재길, 「한국 근대 방송문예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52면.

19) 마이클 로빈슨, 앞의 글, 122면. “가장 인기 있던 심야 음악 프로그램에 앞서 방송된 ‘라디오 드라마 시간’(오후 7시-8시)은 표준 인기 프로그램이 되었다. 한국 신문은 라디오 드라마 프로그램들의 줄거리를 요약해서 실음으로써 도시의 극장 공연 활동을 널리 광고하는 데 기여하였다.”

20) 라디오 드라마와 유성기음반이 연극 공연과 맺고 있는 관계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인다. 지금으로서는 라디오와 유성기음반 감상계층이 이 매체를 통해 연극 공연을 보다 대중적이고 소비적인 상품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리라는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이다.

山の 西々쪽 한 중어리에 墓地의 무덤가티 습복습복 허터서 있는-썩드조 아 浪漫主義詩的으로 形容한다면 海溝가튼 白沙場에 부터있는 조개 껍질 가티 아니 處女의 乳房가티 土幕村의 한 거리를 이리저리 거니러본다. 그러면 나는 어느듯 天國과 地獄을 한꺼번에 巡禮해 보는 것가튼 늦김이 생긴다.²¹⁾

권환이 내려다본 경성의 면모는 식민지 국가 도시의 모순이 가득 찬 형상이었다. 경성의 시대적 징후는 천국과 지옥으로 명명되고 있는데 그 발언은 북촌(北村)과 남촌(南村) 사이에 드리워져 있는 날카로운 단절점을 간과한 뒤에 가능했던 공간정치학적 견해였다. 제국의 도시 동경(東京)의 식민주의적 패러디였던 경성(京城)의 풍광은 근대화에 대한 피식민지 주민의 열망과 좌절을 비타협적으로 병치시키고 있었다. 남촌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근대 도시의 스펙터클은 북촌의 상대적인 전근대적인 낙후성과 적대적인 대비 관계에 있었다.²²⁾ 그것은 마치 일제 강점기 초기에 강행되었던 박람회의 식민주의적 인류학, 즉 전근대적인 조선의 전통 유물과 선진적인 근대국가 일본의 근대적 발명품을 대비시킴으로써 제국의 문명과 피식민지 국가의 야만성을 강조했던 상황을 환기시킨다.

권환은 식민지 도시 경성에서 근대성의 광휘(光輝)보다는 식민지의 어두운 징후들을 더 예민하게 느끼고 있다. 식민지 주민들의 시선을 유혹하는 남촌의 시각적 스펙터클은 제국의 식민 정책이 펼쳐놓는 판타스마고리아(phantasmagorie)의 추악한 뒷모습을 온전하게 감출 수 없었다. 경성은 이른바 ‘비동시성의 동시성’을 전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식민지 조선의 축소(縮圖)”²³⁾로서의 문체적인 공간이었는데, 이때 ‘비동시성의 동시성’은 전근대와 근대가 혼재되어 있는 시간적 착종을 의미한다. 이는 동

21) 權煥, 「文人이 본 서울, 天國과 地獄」, 『朝鮮日報』, 1932.1.3.

22) 하시야 히로시(橋谷弘), 김제정 옮김,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도시를 건설하다』, 모티브, 2005, 81면.

23) 中間人, 「外人의 세력으로 觀한 조선인 경성」, 『開闢』, 1924. 6, 39면.

시에 제국의 도시 동경(東京)과 식민지 도시 경성(京城) 사이의 비균질성을 환기시킨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권한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식민지 도시 경성의 비균질적인 공간 분할 현상이 시각적 반성에 의해 규명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의 경성은 한마디로 하면 자본주의 도시인 경성으로 변하여가는 것이다. 모든 봉건 유물은 쫓기고 자본주의의 제요소가 변화스럽게 등장한다. 이 반면에 자본주의의 그것이 낳아 놓은 대량의 빈민도 늘어간다. ... 경성은 집집의 쓰레기나 변소에서 매월 수천 차의 똥오줌과 쓰레기를 산출한다. 그러나 이 똥오줌과 쓰레기에 못지않게 더러운 화류병자, 고히 중독자, 타락자, 정신병자도 산출하고 남이 보면 얼굴을 찡그리는 걸인도 산출한다. 청계천변, 광희문 밖, 애오개 산지 일대, 남대문 밖, 노동자 거리, 지하실에는 수천의 걸인이 있다. 이 걸인은 모든 것을 조소하며 모든 것을 저주한다. 화려한 도시의 부스럼(腫物)이요 사회 진보의 찌꺼기이다. ... 부호와 걸인, 환락과 비참, 구와 신, 이 모든 불균형을 4십만 시민 위에 ‘씩씩’하게 배열하며 경성은 자라간다.²⁴⁾

식민지 시기 경성의 북촌과 남촌 사이에 존재했던 물적 토대의 현격한 불균형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행해진 바 있다.²⁵⁾ 북촌과 남촌 사이의 차이는 우선 시각적인 경관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인들이 주로 살고 있었던 남촌의 경우 도로와 하수 시설, 건물 구조와 전기 및 통신 시설 등 근대적 도시의 풍모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반해 북촌은 근대 문명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 전근대적 낙후성을 유물처럼 지닌 채

24) 유광열, 「대경성의 점경」, 『사해공론』, 1935.10. (나희덕, 「1930년대 모더니즘 시의 시각성-보는 주체」의 양상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40면에서 재인용.)

25) 손정목(『한국 개항기 도시사회경제사 연구』, 일지사, 1982.)과 박경용(『개화기 한성부 연구』, 일지사, 1995.)의 연구가 대표적인 연구라 할 수 있겠다.

였다.²⁶⁾ 이러한 남촌과 북촌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 분할과 불균등은 제국주의자와 피식민 주민들의 인종적, 국가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재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²⁷⁾ 식민지 도시 경성에서 근대성을 가깝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는 소비 행위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여기에서 북촌의 상품과 남촌의 상품은 피식민지인에게 있어서 구매 욕구의 위계질서를 초래한다. 본정통에 자리한 일본인 상업지역의 상징이었던 미쯔코시(三越)백화점을 이용할 때 이러한 중첩적이고 분열적인 경험은 보다 직접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²⁸⁾

승강기를 갖춘 현대식 백화점과 현란한 거리풍경, 각종 소비시설과 유흥업소, 환락시설들은, 욕망의 무한 개방과 그에 따른 도시적 환상을 만들어냈다. 조선청년의 타락과 퇴폐풍조의 만연은 여기서 필연적인 것이 된다. 이 모든 도시적 위안물이 총독부 당국의 정치적 탄압과 식민지 수탈의 대가로 주어졌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당국은 생산량의 증대에 대

26) 김영근, 「일제하 식민지적 근대성의 한 특징-경성에서의 도시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57권, 한국사회사학회, 2000, 15면.

“경성은 행정 구역이 확장되는 1936년 이전까지 그 명칭도 ‘야마토마찌(大和町)’나 ‘메이지마찌(明治町)’나 ‘마치(마찌)’라 불려야 제 맛이 생기는 ‘정(町)’과 ‘갯골’이니 ‘똥골’이니 ‘골’이라 불려야 제 맛이 생기는 ‘동(洞)’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여기에서 ‘정(町)’과 ‘골’로 변별되는 경성 남촌과 북촌의 공간 명칭은 근대성과 식민성의 날카로운 불협화음을 가시화시키고 있었다. 게다가 “경성에서 전등이 가장 먼저 가설된 곳도 진고개였고, 방울꽃(鈴蘭) 모양의 아름다운 가로등이 설치되어 진열창의 불빛과 어우러져 불야성을 이룬 곳도 그곳이었다. 경성 구경할 때도 진고개는 ‘전등이 켜진 후에 보아야 할’ 곳, 밤에 남산에서 내려다보면 금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은 곳이었지만, 북촌의 심장인 종로에는 1930년대 중반에야 가로등 설치가 본격화되었다. 그 밖에 수도, 가스 시설, 공중전화가 있는 장소에서도 불균등했다.”(같은 논문, 17면)

27) 윤대석, 「경성의 공간분할과 정신분열」, 『국어국문학』 144집, 국어국문학회, 2006, 93면.

28) 김영근, 「일제하 일상생활의 변화와 그 성격에 관한 연구-경성의 도시공간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167면.

응하는 공평한 분배 대신에 서울시민으로 하여금 화려한 수도, 아름다운 대도시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환상을 시민들에게 불어넣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행복이라는 환상도 어디까지나 돈을 가진 사람만이 살 수 있었다는 사실 속에 일체의 기만적인 우민화(愚民化) 정책의 실체가 감추어져 있다. 당시 서울에는 통금이 없었다.²⁹⁾

1930년 당시 경성에는 약 10여 개의 영화 상설관이 있었다. 이들 극장들의 개막 일수는 각기 조선극장 365일, 단성사 364일 등 1년 내내 영화를 상영했다. 그리고 연간 관람객 수는 각 극장마다 20만을 넘어섰기 때문에 경성 인구 70만을 기준으로 하여 최소한 일 년에 세 번 이상의 극장 출입을 한 것으로 보인다.³⁰⁾ 이 사실은 당시 영화관을 출입할 수 있었던 경성의 성인들이 관람문화와 매우 친숙해진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어떤 의미에서 근대 도시 경성을 체험하는 것은 식민지 주민에게 있어 하나의 관람행위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극장 외부의 근대적 경관은 극장 내부의 볼거리와 내적 연관성을 맺고 있었다. 비록 남촌의 화려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당시 종로 공간의 길거리는 관람을 유도하는 ‘극장’ 역할을 했다.

대형 건물의 등장과 함께 종로 상가의 풍속도 크게 변화였다. 길가는 사람들에게 달라붙어 흥정을 붙이는 여럿꾼으로 대표되던 종로 상가의 마케팅은 ‘고객을 끌어 들이는’ 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1925년 가을부터 시작되어 정례화된 ‘종로 중앙연합경품부 대매출’은 새로운 상가에 새로운 장식을 더함으로써 시민의 발길을 끌어들이는 대규모 마케팅 행사가 되었다. 경품 제공, 활동사진 상영, 기생 출연, 구군악 행렬과 같은 각종 이

29) 서준섭, 「자본주의의 화려한 옷으로 변신한 1930년대 경성거리」, 『역사비평』, 1991년 여름호, 103면.

30) 조연정, 『1920-30년대 대중들의 영화체험과 문인들의 영화체험』,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4집, 한국현대문학학회, 2003, 208-209면.

벤트는 오늘날 각 지역 상가에서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거리축제’와 다를 바 없는 것이었다.³¹⁾

남촌과 북촌에 적용된 식민지적 자본주의 체제는 도시 공간 자체를 볼거리로 환원시켰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극장이 판타스마고리 아로서의 영화를 영사(映寫)해 주는 공간임과 동시에 ‘극장’ 건물 그 자체가 시각적 감상 대상이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근대적으로 건축된 극장이나 카페, 백화점과 박람회 건물 등은 이미 그 자체로 광고 수단이었다. 이 건물들은 대로(大路)의 행인들을 건물 안으로 유인하여 흥미로운 시각적 쾌락을 선사하기 위해 매혹적인 외관을 꾸며야 했다. 한국 근대 극장의 선구자적인 건물인 단성사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단성사는 극장 안에서 관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선사하는 편의시설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단성사라는 건물의 외관 자체가 행인들에게 근사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었다.³²⁾ 특히 경성 공간의 시각적 장관은 새것을 추구하는 모던보이와 모던 걸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매혹의 대상으로 다가왔다. 이상(李箱)의 모더니즘적 성향에 대한 다음의 글은 비단 경성의 몇몇 모더니스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

1930년대 경성은 모던한 존재들의 ‘산책’ 공간이었다. 이상(李箱) 문학에서 ‘산책’ 체험은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그 하나는 ‘쇼윈도’나 ‘백화점’과 관계되고, 다른 하나는 ‘경성’이나 ‘거리’와 관계된다.³³⁾

31) 전우용, 「근대 종로의 상가(商街)와 상인(商人)」, 권오만 외, 『종로:시간, 장소, 사람-20세기 서울변천사 연구Ⅱ』, 서울학연구소, 2002, 157면. 이때 시가(市街)의 스펙터클은 극장 내부의 볼거리로 심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극장 외부의 볼거리와 극장 내부의 볼거리가 산책자와 관람자의 정체성을 동일화시켰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32)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서울, 20세기-100년의 사진기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0, 105면.

33) 고봉준, 「1930년대 경성과 이상(李箱)의 모더니즘-백화점과 새로운 시각체제의

1930년대 문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이 시기 예술가들의 ‘산책’ 경험과 ‘시각적 욕망’을 비중 있게 취급해 왔다. 여기에서 ‘산책’이라는 모티브는 당연히 시각적 욕망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산책’과 ‘시각적 욕망’은 자본주의 시스템과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시각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산책하는 경성 주민들은 불가피하게 자본주의적 교환 시스템에 연루될 수밖에 없다.

올타! 오늘이 일요일이다. 그래서 행길에도 悠悠히 걸어 단이는 散步客 이 역개를 부린다. 케볼카(架空電車)를 타고 南山에 올르는 사람, ... 비행기로 금강산 遠乘을 하는 남녀들, (一週一回式 定期로 금강산 가는 비행기가 있다.) 백화점 삼층에서 일요일마다 열리는 音樂舞蹈會에 한 목 끼여서 춤추러 가는 사람(댄스·홀이 데파-트 삼층에까지 延長되었다.) 아침부터 애인의 팔을 끼고 三仙坪이나 漢江 江邊으로 나가 원숭이 건널면서 산보를 질기는 사람들 극장으로 몰리는 남녀 남녀 남녀 토-키 레뷰 ... 이 하루를 가장 인상 깊게 효과 있게 보내고자 하는 사람의 때가 제곱 각한 週日 전부터 선택해 두었던 유흥의 장소를 찾노라고 鐘路 네거리에 집중하며 또 散之四方 훑터진다.³⁴⁾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경성의 행락객들은 케이블카를 타면서 남산 유람에 나서고, 비행기로 금강산 관광에 나서며, 백화점, 댄스홀, 한강 강변 유람, 영화관, 카페 등을 전전하며 시각적 쾌락을 위해 소비한다. 이러한 관광 행위는 식민지 도시 경성이 일종의 산책자의 공간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이는 곧 “도시의 거리가 시각적 쾌락을 자아내는 무수한 스펙터클을 만들어내고 또 그 속에서 도시 거주인들의 시선이 혼육”³⁵⁾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피식민지인들에게 있어 시각

등장], 『문화과학』 45호, 2006, 235면.

34) 박露兒, 「十年後 流行」, 『別乾坤』, 1930.1, 102-103면.

35) 이성욱, 『한국 근대문화와 도시문화』, 문화과학사, 2004, 263면.

적 쾌락을 제공하는 식민 도시 경성은 “소외되어온 상품들이 가득 전시된 세계일 뿐이고, 이 세계는 한국인의 욕망과 매혹을 부추”³⁶⁾기는 쇼윈도일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 행위를 유혹하는 상품 진열대의 공간 중의 하나가 극장 및 극장 주변 공간이었다.

4. 극장 주변, 욕망의 배출구로서의 시장(市場) 공간

이 시기의 극장 및 극장 주변의 공간은 매우 문제적인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공간은 근대 공연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고급 사교장이기도 했고 ‘에로-그로’를 체험할 수 있는 성적 욕망의 배출구이기도 했다. 이때 극장이란, 영화나 연극이 다 끝난 뒤에서 “아니 도라가고 여자들이 다 쏘다져 나올 때까지 어정거리는 캡 놀너 쓴 친구”³⁷⁾들이 들끓는 공간이다. 그리고 젊은 남녀가 삼각관계 때문에 난투극을 벌이는 장소이기도 했다.³⁸⁾ 다음의 두 글은 극장 내부에서 벌어진 퇴폐적인 관람 문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극장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당시의 일탈 행위들

36) 최정무, 「불가사의한 식민주의와 매혹된 관객들」, 『문화읽기 : 뼈라에서 사이버 문화까지』, 현실문화연구, 2000, 87면.

37) 『葉書通信』, 『別乾坤』, 1930.3.1, 79면.

38) 이 시기 경성 공간에서의 ‘에로’ 체험을 주민들의 개별적인 욕망 분출의 기회로만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 체험은 계급, 성차, 인종 등의 차별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에로” 공간은 식민지 사람들이 자신과 일본인의 계급적 차이를 체험하는 공간이기도 하였다. 에로 공간에서 경제적 차이를 동반한 계급적 격차는 ‘에로’적인 공간을 여유 있게 누리는 일본인 남성과, ‘에로’ 공간을 욕망하지만 그럴 만큼 충분한 경제적 여건이 안 되는 조선 남성들 간의 위계를 만들어 내고, 그 속에서 일본 남성의 우월성을 인식하게 했다. 이런 맥락에서 에로 공간은 근대성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자 식민성을 체험하는 공간이기도 하였다.”

채석진, 「체극의 감각 : ‘에로 그로 년센스’」, 『페미니즘 연구』 5집, 도서출판 동녘, 2005, 66-67면.

은 백화점, 카페, 박물관, 아케이드 등에서 발견되는 것들과는 다른 모양을 띠고 있었다.

지난 이십팔일 밤에는 영등포 연예관(演藝館) 이층 관중석에서 구경하는 척하고 그실 그리운 젊은 남자에게 사랑을 속삭거리든 두 꾀다운 소녀들이 뜻하지 안혔는 삼각연애 관계가 폭발되어 남 북그러운 줄도 몰고 서로 끄대기를 잡고 어우러져서 한바탕 대난투가 일어나서 옷을 찢고 코피를 흘리는 등 장관을 일우워 일시는 대혼잡을 일우엇었는데 ... 우연히 그날 밤에 삼각관계가 폭로되자 서로 그와 가티 남부끄러운 줄도 몰고 수백관중 속에서 일대 연애 쟁탈극을 연출한 것인데 본노의 봄철을 당하야 소년 소녀를 둔 일반 가정에서는 크게 주의할 일이라고 한다.³⁹⁾

학생들의 풍기 문제는 경향은 물론하고 사회의 일 커다란 관심거리로 되어있지만은 최근 대구에서는 수만흔 『카페』의 붉은 등불 및치나 컴컴한 중국 사람의 우동집이며 추잡한 맛걸니집 뒷방까지 심하면 중로 네거리에서 비렬한 류행 창가를 부르며 술이 취하야 걸핏하면 행인에게 싸움까지 하는 학생패들이 만히 늘어 학교당국이 감독에 고심하는 보람도 업시 일반 사회는 그들의 해괴한 거동에 놀나지 않는 사람이 업는 중, 지난 십구일 밤에도 시내 모 중등학교의 학생 오륙명이 모 극장에 몰려들어 공중의 도덕을 무시하고 출입할 쎄 말도 업시 관객을 타넘어다니며 구경 온 기생들의 일흠을 소리를 높혀 부르며 그 수효도 교실에서 배우는 영어 『스펠』보다는 더 만히 아는 모양인데 심한 자들은 그중 나 어리고 어엿분 기생이 이르면 주소 성명을 기록하여 두엇다가 다음 서신을 보내던지 방문을 하는 등 그들의 방약무인한 태도에는 모다 혀를 굴린다는 바.⁴⁰⁾

요컨대 극장 내부와 극장 밖의 주변은 근대 공연 문화를 섭취하기 위해 방문하는 자들보다는 소위 사이비 ‘모던 보이’와 ‘모던 걸’, 또는 음탕

39) 「三角愛의 爆發로 劇場에서 亂鬪」, 『朝鮮日報』, 1937.4.1.

40) 「酒店, 劇場出入에 學生風紀極度紊亂」, 『朝鮮日報』, 1932.2.22.

한 목적으로 몰려든 성인 남녀들의 애정 행각으로 소란스러웠던 공간으로 받아들여졌다.⁴¹⁾ 특히 불량 학생들의 일탈 장소로 해석되던 극장 공간은 기성 사회의 엄숙주의로서는 수용되기 어려운 곳이기도 했다.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극장 문화의 풍기 문란 문제는 비단 경성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었다. 부산, 대구, 신의주 등 식민지 시기 동안 건설된 근대적인 도시 공간에서는 거의 유사하게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었다. 이에 따라 극장 및 극장 주변의 ‘에로’ 풍경은 지식인들로부터 풍기 문란의 주요 장소로 비판받게 된다. 탐방기자의 눈에 비친 연극장(演劇場)의 풍경은 그야말로 ‘유혹의 난무장(亂舞場)’일 뿐이었다.

탐방기자의 자신으로서도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개관하기 전부터 xx상설관 문 압해 가서 개관하기를 기대려 이칭 관람석 한구석에가 쭈그리고 안저 침침한 눈을 연해 손수건으로 써서가며 살펴보았으나 들은들은 불그스레하게 켜놓은 비상전등(非常電燈) 불빛이 흐미한 속에 반딧불 모양으로 반짝이는 것은 담뱃불이었다. 열시가 지나서 외투 『에림』를 치올린 친구 두 사람이 어두운 청계를 더듬어 올라와 바로 괴자가 안진 업

41) “1930년대에 장기화된 일제 지배가 만주사변 등을 통해 더욱더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저항 세력과 안주 세력에 대한 일본의 이중적인 정책(저항 세력은 확실하게 탄압하지만, 그렇지 않은 세력은 지배층과 지식인을 중심으로 흡수하는 정책), 태평양 전쟁의 예감, 일본의 국제 연합 탈퇴 등은 당시 대중매체를 창간하는 지식인들에게 전쟁이라는 죽음에 대한 예감과 더불어 저항의 무력감을 안겨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일제는 조선을 일본과 같은 민족으로 동일시하는 ‘내선일체’ 정책을 본격화하였고,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은 ‘문명화된 일본인’으로 자신을 동일시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자유롭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전망의 부재가 가져다주는 무력감을 잡지의 주 생산자였던 남성 지식인들은 물론이고, 일반 대중도 쉽게 일본 대중매체가 당시 추구하던 ‘감각적 쾌락’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는 기반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채석진, 「체구의 감각 : ‘에로 그로 년센스」, 『페미니즘 연구』 5집, 도서출판 동녘, 2005, 47면.

해 있는 비인 자리로 와 안지며 사진에는 일업다는 듯이 고개를 맞대이고 수군대기 시작한다. ... 한 친구는 부인석 뒤 당하로 드러간다. 기자도 표 밧는 곳으로 와 담배 하나를 물고 내려오기를 기대린지 한몫분하야 여염 집 부인으로는 너머나 사치를 하얏고 그러타고 뉘집 귀부인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묘령 부인을 압세우고 극장문을 나서서는 환하게 밝은 가두(街頭)의 『일미네손』과 『네온싸인』을 귀치 안타는 듯이 피하야 가며 치치한 어둠 속으로 그림자를 감추는 것이다. 비일회견과 유혹의 란무장(亂舞場)인 연극장에는 『에로』 풍경 외에 다른 것이 없섯다.⁴²⁾ (밑줄 강조는 인용자.)

위의 인용문을 통해 당시 연극 공간이 젊은 남녀들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연애의 장소였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글에서 밑줄 친 부분처럼, 어떤 의미에서 극장이라는 공간은 경성 가두(街頭)를 대낮처럼 밝히고 있는 네온사인의 시각적 유혹으로 향하는 하나의 매개적 공간의 기능도 수행했다고도 할 수 있다.

사실 위의 글을 적고 있는 탐방기자의 감각도 주로 시각적인 자극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현상들은 극장 내부의 풍경과 불륜의 남녀들이 사라져버리는 도심의 야경(夜景)에 국한된다. 이 글에서 기자에 의해 재현되고 있는 광경은 근대 지식인의 시선에 포착된 식민지 ‘대경성(大京城)’의 스펙터클 그 자체를 의미한다. 나아가 극장 공간은 두 개의 탐욕적인 시선이 엉키는 곳이기도 했다. 스크린과 무대 위를 채우고 있는 성적 대상으로서의 여성의 육체는 남성 관객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대상이었다. 동시에 스크린과 무대를 감상하고 있는 극장 내부의 관객들은 서로를 서로의 성적 대상으로 흠쳐보기도 했다. 말하자면 극장에서 관객은 성적 대상을 탐닉하는 시선 주체임과 동시에 타인에게 관찰당하는 시선 객체이었다.

옥외의 조명등은 낮보다도 더 밝은데 학생, 신사, 노동자, 기생, 모던뽀이, 모던걸이라는 장안의 모뽀, 모궐은 하로스밤의 형락을 누리어보라고 흥수처럼 극장 압호로 쏘다저 밀리었다. 그 틈에 끼워서 형식군과 숙자는 두 아저씨를 모시고 입장권 녀장을 사들고는 극장 이층으로 올라갔다. 형식군과 숙자는 실상 자기 아저씨들이었만 여러 사람들 속에서 갓쓴 시골 뻥이라는 것이 자기들 체면에 무슨 수치나 되는 것가터서 될 수 있는 대로 가튼 자리에 안기를 피하고 더구나 자기들끼리만 둘이서 한자리에 안는 것이 남 보기에 부러워 할 것만 가티 생각이 드렸다. 그래서 두 아저씨들은 한편에다 자리를 잡아주고 자기들끼리는 둘이서 가족석에 가 나란이 안졌다. 별안간 불이 탁 꺼졌다. 두 아저씨들은 네눈이 휘둥그래져서 어쩔 줄을 모르다가 또다시 건너편에 무슨 귀신가튼 사람이 나타나서 윈갓짓을 다하자 두 아저씨들은 자기 지방 보통학교에서 순회위생환등대회를 한번 본 겸 경험이 잇기 때문에 착히 안심하였다. 그 활동사진이 끝나고 둘째 번에 기생의 땀스 레뷰가 열리었다. 숙자의 아저씨는 참아 못 보갓다는 드시 얽헤 안져잇는 형식이 아저씨의 업구리를 쿡 찌르며

「조런 망할 년들이 잇나 조것 빨가벗지 안헛나. 에이 세상은 말세일세 조러니 어대 시골서 마음 노코 자식들을 무어 서울로 공부시킨다고 보낼 수 잇갓나 밤낫 조런 구경이나 다니면 불일은 다 보지」

형식이 아저씨는 그래도 무슨 호기심에 끌리어

「에 그래도 괜찬해 서울이나 왓스니까 이런 구경도 하지 안나」

하고 레뷰구경에 꽤 정신이 팔린 모양이었다. 이상하게도 두 아저씨 얽헤 여염집 부인처럼 천연스럽게 차린 두 부인의 시선은 두 아저씨에게로 보내는 추파가 심상치 안헛다. 모처럼 서울구경오신 두 아저씨들은 꽤 거기에 흥미를 늦기게 되야 이제는 레뷰보다도 두 녀자의 추파가 더 두 아저씨의 마음을 끄렀다.⁴³⁾

42) 「演劇場에 에로 風景-어둠 속에 살어지는 殊常한 男女」, 『朝鮮日報』, 1931.1.1.

43) 李瑞求, 「實查 1年間 大京城 暗黑街 從軍記-카페·마작·연극·밤에 피는 꽃」, 『別乾坤』, 1932.1, 38-39면.

시골에서 상경하여 극장 문화를 체험하는 두 남자는 ‘댄스 레뷰’에서 무희(舞姬)들의 농염한 육체를 감상한다. 이들이 보기에 경성의 극장 문화는 ‘세상은 말세’라고 말할 만큼 타락한 것이기도 하고 ‘서울이나 왓스니까 이런 구경’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대상이기도 했다. 동시에 이 남자의 육체는 옆에 앉아 있던 여염집 부인의 추파를 받게 되는 성적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극장 공간은 성인들의 은밀한 사교장일 뿐 아니라 나이 어린 학생들의 일탈 장소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에 따라 극장과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정취는 사회적이고 상식적인 풍기(風紀)를 본격적으로 훼손하는 원인으로 비춰졌다. 영화의 인기, 성적 쾌락을 충족시켜주는 것으로서의 무대 공연, 근대문화의 교육장소이기보다는 성적 일탈과 무분별한 사교 장소였던 극장 안팎 풍경 등은 ‘근대극’을 관람함으로써 근대성을 체험한다는 상관관계를 빚겨나갔다.

극장(劇場)은 하나의 이식된 제도로서의 근대성의 표상이다. 여기에 ‘특정한 형식’의 문체가 깃들여있음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즉 극장이라는 제도 속에는 하나의 ‘모드’가 전제되는데, 결국 관객들은 연극 자체의 형식과 극장이라는 제도에 강제되는 ‘이중의’ 환각을 품고 극장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식민주의는 대체로 식민지의 도처에 세워진 하나의 거대한 ‘극장’과도 같다. 그러한 ‘극장’은 근대성을 향해 가는 길목에 놓여 있기 마련인데, 마치 신기루처럼 아무리 애를 써도 손에 잡을 수 없는, 하나의 스펙터클을 빚어놓는다.⁴⁴⁾

이에 따라 극장 문화는 주민의 근대적 각성을 위한 계몽운동이나 식민지 현실의 자각을 위한 의식화 운동 따위와는 매우 다른 지형도를 그려내고 있었다. 극장 및 극장 주변은 근대적인 계몽이나 조국 독립의식 고취를 위한 엄숙한 장소가 아닌 식민지적 자본주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시

장논리의 경연장이 되었다. 관객을 유치하기 위해 극장이 벌인 일종의 판촉전(販促戰)은 백화점이나 상점에서 실시했던 각종 고객 유치 작전과 동일한 움직임을 펼쳤다.

금육일은 시내 인사동 조선극장(朝鮮劇場)의 신축개연 일주년 기념일임으로 극장 편에서는 자축을 하는 뜻으로 특히 입장권에 다수한 경품을 붓쳐서 당일 입장하는 관객에게는 추첨권을 배부할이라는데 일등은 시계 이등부터 우산 등 천매에 한하여 공침은 엷다 하며 조선극장과 관계가 깊은 신극좌(新劇座) 민중극단(民衆劇團) 문화극단(文化劇團) 등 각 연극 단체에서는 간부 배우들이 합동하여 특별행행을 할 터이라더라.⁴⁵⁾

演劇이나 映畫를 宣傳하는 秘訣은 萬目이 다 뜨이게 하여 오는 노릇이니까 여러분께서도 대강 짐작하시겠지요. 첫째는 實物宣傳인데 가령 劇團이 하나 서울바닥에 나타나면 거기 영설마진 녀석과 美男美姬로 꾸민 一行을 人力車에 실어 樂隊를 先頭로하여 봉바라봉바라 소리치며 도라다니는데 이것이 第一 効果가 있더군요. ... 그 다음은 빠라와 포스타-외다. 非單 거리로 다니며 뿌릴 뿐더러 劇場에 오시는 이들에게 그 다음 週의 푸로그램 박인 빠라를 돌리는 것도 顧客을 恒常 이끄는 方法이되야 效果가 있습니다. 그런데 2日, 3日의 短期間사이에 效果를 보자면 그것은 新聞이고 좀더 印象깊게 宣傳하자면 적어도 1個月의 生命을 가진 잡지가 훨씬 낫지요.⁴⁶⁾

위의 첫 번째 인용문에서 조선극장이 관객을 유치하기 위해 입장권에 경품을 붙이는 일, 두 번째 인용문에서 동양극장이 행인을 극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거리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고상하고 엄숙한 연극 문화의 이미지를 쇠신하고 누구라도 쉽게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처럼 인식시키는 작업이라 할 만하다. 경성 주민들의 연극 구매력을 고취

44) 손종업, 『극장과 숲-한국 근대문화와 식민지 근대성』, 월인, 2000, 26면.

45) 『朝鮮劇場一週年紀念-관객에게 추첨권 진딩』, 『東亞日報』, 1923.11.6.

46) 『一流商家の 致富秘訣, 第一次公開=宣傳과廣告術』, 『三千里』, 1935.12, 124-125면.

하기 위해서 극장이 선택한 광고 방법은 신문, 잡지의 공연 광고, 공연 티켓에 경품 달기, 극장 건물의 간판 광고와 길거리 순회 광고 등 청각적, 시각적 자극을 총동원하였다. 유성기음반 및 라디오 드라마 등을 통해 격조 있는 근대극과 당대의 흥행 대중극을 접해들었던 감상자들은, 특히 경성에 거주하고 있거나 경성으로 유람 온 관광객들은 극장의 이러한 적극적인 마케팅에 유의미한 반응을 보일 수 있었다.⁴⁷⁾ 이제 연극은 근대극을 배우기 위해 교육받아야 할 대상은 아니었다. 연극은 백화점이나 상가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과 유사한 의미를 지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극장 공간은 카페나 댄스홀과 같이 이성의 육체를 감상하고 연애를 시도해 볼 수 있는 대중적 사교장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했다.

5. 결론

이 글은 1930년대 식민지 도시 경성의 시청각 문화 양상과 극장 문화를 살펴보고자 했다. 경성의 남촌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근대 도시의 황홀경은 이 시기 모던 보이와 모던 걸들이 동경하는 대상이었다. 물론 1930년대 중반 이후부터 북촌 지역도 일본 상인의 진출로 인해 비교적 화려한 외관을 지니게 되었지만, 남촌의 화려함을 뛰어넘지는 못했다. 경성에 주거하고 있는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남촌의 근대 건축물 및 그 건축물을 채우고 있는 제국주의의 상품들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일상용품을

47) 문경연, 「한국 근대초기 공연문화의 취미(趣味) 담론 연구」,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197면. “식민주의적 근대라는 중층적 현실에서 대중들은 단순하고 자극적이며 소비적인 오락문화와 쉽게 결합하였다. ‘취미’라는 근대적 문화실천의 주체가 되는 방식 안에서, 급속하게 오락화되고 통속화된 대중예술과 문화를 선택, 소비하면서 피식민적 삶의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었다. 특히 연극장, 레코드음반, 활동사진 등의 확산을 통해 대중문화는 식민지 대중의 욕망을 환기하고 충족시키는 역할을 했다.”

구매하거나 외식(外食)을 하기 위해서는 북촌의 상가를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북촌의 상가는 남촌에 비해서는 건물의 규모나 시설, 그리고 조명 장치의 수준 등에 있어서 빈약했다. 가끔 화신상회에서 벌이는 바젠세일 기간 몰려온 인파들의 소음, 그리고 길거리로 흘러나오는 유성기음반 소리, 호객 행위를 벌이고 있는 점원들의 소리 등으로 요란스러웠다.

카페나 댄스홀에 가면 다양한 음악을 들을 수 있었고, 여급이나 모던 걸들의 유혹적인 육체를 감상할 수 있었다. 특히 카페의 창가 자리에 앉으면, 동서양의 온갖 음악들을 감상하면서, 유리창 너머로 펼쳐지는 길거리의 근대적 도시 풍경을 감상할 수도 있었다. 댄스홀에서는 뇌쇄적인 음악과 무희들의 율동하는 육체, 입을 적시는 맥주, 무희나 여성 손님의 몸에서 풍기는 향수 냄새, 그리고 젊은 육체가 전달하는 피부 감각 등 온갖 종류의 감각적 자극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인간을 유혹하는 온갖 감각들의 향연 중 주로 청각과 시각적 자극에 주목하였다. 아무래도 유성기음반, 라디오, 영화, 쇼윈도, 무대 막간극, 백화점, 카페 등은 주로 시청각적 자극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시청각적 매체들과 자극들이 톱니바퀴처럼 일사불란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각의 감각적 자극들이 서로 동떨어져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이들 감각적 자극과 매체들이 헤어졌다 떨어지면서 감상 주체들을 소비 주체로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의 소리들과 모습들은 주민들을 상품 구매 행위로 유인하였다. 식민지 도시 경성 주민의 소비를 조장하기 위해 유성기음반과 라디오의 소리들이 감상자의 귀를 유혹했고, 신문이나 잡지의 각종 광고, 그리고 건물의 네온사인이나 건물에 부착한 온갖 광고물 등은 거리를 지나다니는 주민들의 시선을 끌어들였다.

극장 문화도 이러한 자본주의적 상술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흥행 연극이 유성기 음반이나 라디오 드라마와 맺고 있는 결합 관계, 연극 공연과 신문 광고 사이에 맺어진 상호 이윤 추구 관계 등은 극장이 본격적

인 상업 행위에 돌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극장의 이러한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과 더불어 관객들의 취향도 적극적으로 변해갔다. 극장에서 관객들은 연극 텍스트를 감상하러 왔다가보다는 배우들이나 이성 관객의 육체를 감상하고 유혹하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떤 의미에서 이 당시의 어떤 관객 부류는 경품을 타기 위해, 무희(舞姬)들의 육체와 율동을 관음(觀淫)하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이성(異性)에 대한 성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나아가 이성과의 연애를 성공시키기 위해 공연 티켓을 구매하였다.

1930년대 경성의 도시 경관 변화, 백화점이나 대형 상점으로 대표되는 남촌과 북촌의 급격한 상업지구화, 영화의 확산과 대중극의 인기, 유성기 음반과 라디오의 보급, 카페와 댄스홀의 확산, 건물의 광고 간판과 신문 잡지의 광고 등. 이러한 근대 도시적 풍모들이 식민지 주민들의 내면세계를 제국주의 정책에 동화되도록 유인했는지, 아니면 일본 제국의 심화된 식민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에 포섭되지 않는 식민지 주민들의 다양한 욕망 분출을 보여주는 징표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진지하고 섬세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감각의 제국’으로서의 식민지 경성이 주민들을 근대적 감각 주체로 구성했는지, 아니면 일제의 식민지적 수탈과 황민화 정책을 은폐하고 설득하기 위해 주민들을 우민화(愚民化)했는지 판명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자료 조사와 성찰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三角愛의 爆發로 劇場에서 亂鬪」, 『朝鮮日報』, 1937.4.1.
 「아스팔드를 걷는 친구(년센스 特設館)」, 『別乾坤』, 1930.8.
 「演劇場에 에로 風景-어둠 속에 살어지는 殊常한 男女」, 『朝鮮日報』, 1931.1.1.

- 「葉書通信」, 『別乾坤』, 1930.3.1.
 「一流商家의 致富秘訣, 第一次公開=宣傳과 廣告術」, 『三千里』, 1935.12.
 「朝鮮劇場一週年紀念-관객에게 추천권 진영」, 『東亞日報』, 1923.11.6.
 「酒店, 劇場出入에 學生風紀極度紊亂」, 『朝鮮日報』, 1932.2.22.

2. 단행본 및 논문

- 고봉준, 「1930년대 경성과 이상(李箱)의 모더니즘-백화점과 새로운 시각체제의 등장」, 『문화과학』 45호, 2006.
 權煥, 「文人이 본 서울, 天國과 地獄」, 『朝鮮日報』, 1932.1.3.
 김영근, 「일제하 식민지적 근대성의 한 특징-경성에서의 도시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57권, 한국사회사학회, 2000.
 김영근, 「일제하 일상생활의 변화와 그 성격에 관한 연구-경성의 도시공간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김재석, 「1930년대 留聲機音盤의 춘극 연구」, 한국극예술학회, 『한국극예술연구』 제2집, 1992.
 黎曉, 「訪問結婚」, 『別乾坤』 제50호, 1932.4.1.
 李瑞求, 「모뽀모꼴의 新春行樂 經濟學」, 『別乾坤』, 1932.5.1.
 李瑞求, 「鍾路夜話」, 『開闢』, 1934.11.
 마이클 로빈슨, 도면희 옮김, 「방송, 문화적 헤게모니, 식민지 근대성, 1924-1945」, 『한국의 식민지 근대성』, 삼인, 2006, 103-127면.
 문경연, 「한국 근대초기 공연문화의 취미(趣味) 담론 연구」,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朴露兒, 「十年 後, 流行」, 『別乾坤』, 1930.1.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서울, 20세기-100년의 사진기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0.
 서재길, 「한국 근대 방송문예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서준섭, 「자본주의의 화려한 옷으로 변신한 1930년대 경성거리」, 『역사비평』, 1991. 여름.
 夕影, 「女性宣傳時代가 오면(6)」, 『朝鮮日報』, 1930.1.19.
 소래섭, 『에로 그로 년센스-근대적 자극의 탄생』, 살림, 2005.
 손중업, 『극장과 숲-한국 근대문학과 식민지 근대성』, 월인, 2000.

- 요시미 슌야, 송태욱 옮김, 『소리의 자본주의』, 이매진, 2005.
- 유광열, 「대경성의 점경」, 『사해공론』, 1935.10.
- 윤대석, 「경성의 공간분할과 정신분열」, 『국어국문학』 144집, 국어국문학회, 2006.
- 李光洙, 『李光洙 選集』, 語文閣, 1978.
- 이상길, 「“인텔리 위안소”, 혹은 식민지 공론장의 초상」, 『문화과학』 통권 36호, 문화과학사, 2003.
- 李瑞求, 「實査 1年間 大京城 暗黒街 從軍記-카페·마작·연극·밤에 피는 꽃」, 『別乾坤』, 1932.1.
- 이성욱, 『한국 근대문학과 도시문화』, 문화과학사, 2004.
- 이승원, 「‘소리’의 메타포와 근대의 일상성-근대 초기~1930년대 서사양식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제5권 제1호, 한국근대문학회, 2004.
- 전우용, 「근대 종로의 상가(商街)와 상인(商人)」, 권오만 외, 『종로:시간, 장소, 사람-20세기 서울변천사 연구II』, 서울학연구소, 2002.
- 조연정, 『1920-30년대 대중들의 영화체험과 문인들의 영화체험』,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4집, 한국현대문학회, 2003.
- 中間人, 「外人의 세력으로 觀한 조선인 경성」, 『開闢』, 1924. 6.
- 채석진, 「제국의 감각 : ‘에로 그로 넌센스」, 『페미니즘 연구』 5집, 도서출판 동녘, 2005.
- 최정무, 「불가사의한 식민주의와 매혹된 관객들」, 『문화읽기 : 뼈라에서 사이버 문화까지』, 현실문화연구, 2000.
- 双S生, 「大京城 狂舞曲」, 『別乾坤』, 1929.1.
- 하시야 히로시(橋谷弘), 김제정 옮김,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도시를 건설하다』, 모티브, 2005.
- 咸大勳, 「文人이 본 서울, 兩色の 雙流」, 『朝鮮日報』, 1932.1.16.

Abstract

A Study on the Audiovisual Environment and Theatrical Culture in Kyeong-Sung(京城) City in 1930's

Park, Myeong-jin

This paper examines the aspects of the audiovisual culture and theatrical culture in the colonial capital, Kyeong-Sung(京城), in the 1930s. An ecstasy in the southern village(南村) of Kyeong-Sung(京城), which was a modern city, was the one that modern boys and modern girls long for in that period.

Since the mid-1930s, the northern village(北村) of Kyeong-Sung(京城) has splendid external appearances, thanks to the Japanese advance into the northern village. However, the magnificence of the northern village could not be compared with the one of the southern village.

The inhabitants of Kyeong-Sung could hear various music in a cafe or a dance hall, and appreciate a fascinating body of a waitress or modern girl. This paper focuses on the aural and visual stimuli among all senses that attract human being.

The voices and landscape of the city allured the inhabitants of Kyeong-Sung into buying the goods in the department store or shopping mall.

The sound of disc of gramophone or radio promoted the desire of the inhabitants of Kyeong-Sung for consumption, and the ads of newspapers or magazines, and the neon signs or signboards on the buildings charmed the eyes of the inhabitants of Kyeong-Sung walking round the street.

The audiences coming to the theatres visited to enjoy the bodies of actresses or female audiences rather than to enjoy the dramas or movies. The culture of the dramas was

closely connected with the modernity and coloniality of the city in that period. The audience became the subject of the modernity by appreciating the modern dramas. Encountering of the audience and theatre as modern buildings, and encountering of the audience and culture of the dramas induced the audience to pursuit the modernity.

On the other hand, the culture of the dramas that the audience experience could not be free from the shadow of the colonial policy since the Japan's imperialism allowed only the themes of the dramas that did not contravene the colonial policy. The audience of the dramas was the Flaneurs who appreciate the modernity of the city as well as the subjects made by Japanese imperialism.

Key words : Kyeong-Sung, the audiovisual culture, modernity, phantasmagorie,
capitalism in colony, theatre, voyeurism

접 수 일 : 2008년 2월 27일
심사기간 : 2008년 3월 1~22일
게재결정 : 2008년 3월 22일